장고 []

###### 목차

###### 그림목차

[그림 1 장고 3](file:///C:\Documents%20and%20Settings\USER\바탕%20화면\Word%202007%20예제\기본%204-4.docx#_Toc280550016)

[그림 2 장구 통 4](file:///C:\Documents%20and%20Settings\USER\바탕%20화면\Word%202007%20예제\기본%204-4.docx#_Toc280550017)

[그림 3장구 궁굴채 7](file:///C:\Documents%20and%20Settings\USER\바탕%20화면\Word%202007%20예제\기본%204-4.docx#_Toc280550018)

[그림 4 장구 열채 7](file:///C:\Documents%20and%20Settings\USER\바탕%20화면\Word%202007%20예제\기본%204-4.docx#_Toc280550019)

###### 표 목차

# 1.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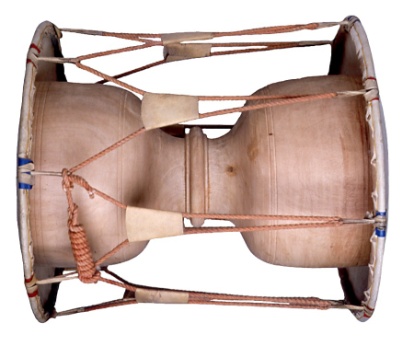
장고는 중국의 서쪽지역 국가에서 사용하던 전통악기로서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고려 예종 9년(서기 1114년) 6월 견송사(遣宋使)로 갔던 안직승(安稷繩)이 송나라의 휘종이 보낸 새로운 악기 속에 장고 20편을 가져온 것이 시초이다. 이 시기에 송으로부터 편경, 편종 등의 악기가 들어오고 대성악이 들어오면서 우리 음악은 왜래(송) 음악인 당악으로 인하여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당시까지 우리나라는 오케스트라가 없었는데 대규모 관현악단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장고의 본격적인 사용시기는 고려시대부터라고 하지만 이보다 앞선 삼국시대의 고구려나 신라 유물에서 발굴 된 벽화나 범종에서 장구와 비슷한 악기가 그려진 것으로 발견되어 장고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장고

# 2. 악기 재료

1) 원자재 : 오동나무, 소나무, 낙엽송, 은행나무

2) 부자재 : 오루가죽, 개가죽, 소가죽, 말가죽, 양가죽

3) 부속품 : 장고줄, 고리, 축수, 카바, 대뿌리채, 열채, 신주못, 신주고리 등

4) 크기 : 통의 크기는 장시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6치, 7치, 8치가 있으머 새람의 신체 특성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다.

[](http://gugakisearch.naver.com/dbplus.naver?pkgid=201007130&query=%EC%9E%A5%EA%B3%A0&id=0000000492c6)장고는 장고통의 재료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 옛날에는 장고통을 궁채편과 열채편과 울음목쪽 등 세 토막으로 분명해서 썼다. 종류로는 바가지 장고나 채바구장구(채바귀방구), 옹기장고, 그리고 괴나무, 은행나무, 오동나무, 소나무 등을 파서 통을 만들어 쓰는 나무장고와 양철장고, 함석 장고도 있었다고 한다. 양철장고는 양철을 납으로 때워서 총을 만든 것이고, 함석장구는 함석을 동그랗게 말아서 통을 만들어 쓰는 장구를 말한다.

그림 2 장구 통

바가지장고는 큰 바가지 두 개를 골라서 그것을 두 조각으로 갈라 거기에다 종이를 잘 발라 소리나게 하고, 가운데목(울음목)은 나무를 파서 만들었고, 옹기장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항아리 뚜껑이나 자배기 같은 것에다가 옷감을 풀로 발라서 소리나게 하여 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고보다는 나무를 파서 만든 장고, 특히 소나무, 오동나무 장고는 튼튼할 뿐만 아니라 가볍고 소리도 잘 나서 요즘에는 대부분 이러한 장고만 사용한다. 소나무 장고를 만들려면 나무로부터 진을 빼야하므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시궁창에 삼년 묻었다가 꺼내어 만들었다고 한다. 소나무 장고는 습기가 잘 안차서 가죽의 신축이 없고, 오동나무는 마를수록 나무의 질이 단단해져 버러지거나 뒤틀림이 없다는 점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소나무 장고나 오동나무 장고는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에 관계없이 소리가 잘 난다.

# 3. 장고통 제작 방법

표 1 장고통 제작방법

|  |
| --- |
| 1) 20~50년 생 원목선별 |
| 2) 원목절단(사용도별, 형태별 약 20여종) |
| 3) 외형 제작 |
| 4) 내형 제작 |
| 5) 마무리 제작 |
| 6) 건조(일반건조는 5~7일, 전문건조는 노천 건조기간을 경우 2~#년) |
| 7) 사포 후 무늬 살리기(인두질) |
| 8) 도료칠(유광, 무광, 옻칠, 자개박음칠, 화두그림칠, 조각칠 등)순으로 하고 형태별로 평형, 반수박형, 수박형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 평형은 선반용이나 민요 반주용으로 사용하고 수박형은 앉은반용이나 무악 연주용으로 사용한다. |

# 4. 가죽제작방법

표 2 가죽 제작방법

|  |
| --- |
| 1) 가죽 선별 수집 |
| 2) 털 제거 및 노폐물 제거 |
| 3) 용도별, 형태별, 가죽 두께 조종 켜기 |
| 4) 가죽 늘림, 불림 및 세척과 채색 처리 |
| 5) 용도별 형태별 제단(두꺼운 용도의 가죽은 늘림 장치기) |
| 6) 형틀에 맞추어 제본 및 못치기 |
| 7) 자연 건조 및 단청과 마무리 |

악기 형태에 0.2mm에서 2~3cm의 두게까지 사용한다.

쇠가죽은 두엄에 묻어 썩혔다가 꺼내 양회나 쌀뜨물이나 보리뜨물로 씻은 다음 사방으로 펴서 통에 붙여 만들었고, 개가죽이나 노루가죽은 오줌통에다 오랜 시간 담궈 두었다가 꺼내어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털을 제거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노루가죽이나 개가죽을 사용하여 만들었기에 장구라는 이름을 얻었을 것이다.

요즘은 재료의 희소성 때문에 노루가죽은 구하기가 힘들어 거의 볼 수가 없고 개가죽도 대부분 수입품으로서 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사물놀이가 발당하면서 말가죽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성음의 차이 때문이다.

# 5. 채 제작 방법

## 1) 재료

표 3 채 재료

|  |  |
| --- | --- |
| 궁알 | 탱자나무, 대추나무, 박달나무, 대나무 밑둥, 옥, 흑단 등 |
| 채 | 대나무, 대나무 뿌리, 시누대, 쇠 |
| 열채 | 대나무(년이 오래되어 살이 두꺼운 것) |

일반적으로 궁알은 나무가 가장 단단한 대추나무를 사용하고, 쇠채는 탄력이 있는 탱자나무를 주로 사용한다.

[](http://gugakisearch.naver.com/dbplus.naver?pkgid=201007130&query=%EC%9E%A5%EA%B3%A0&id=0000000492c6)채는 영무장 지역에서는 대 뿌리보다는 시누대를 많이 사용한다. 이유는 잘 부러지지 않고 탄력이 좋기 때문이다.

그림 3장구 궁굴채

[](http://gugakisearch.naver.com/dbplus.naver?pkgid=201007130&query=%EC%9E%A5%EA%B3%A0&id=0000000492c6)열채는 일반적으로 장단용, 풍물용으로 구별하여 쓰기도 하고, 길이는 팔을 90。로 접어 그 사이에 끼어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람마다 신체적 차이가 있다. “모름지기 궁채 100개, 열채 1,000개는 만들어 보아야 장고를 친다고 말할 수 있다는가 어쩐다든가”

그림 4 장구 열채

## 2) 재료수집

나무가 자라지 않는 동절기나 단오 전 까지가 적당하다.

더운 여름에 대 뿌리 캔다고 대나무 밭에 들어가 모기 때문에 고생해 본 사람이라면 상당히 공감되는 이야기 일 것이다.

## 3) 용도별, 형태별 재료 선별

## 4) 뿌리 삶기

소금을 10% 정도 섞어서 2시간 이상을 삶아 꺼내면서 따뜻할 때 구부러진 곳을 손으로 펴서 바로 찬물에 담근다. 이후 가능하면 3개월 이상 그늘에서 건조시킨다.

## 5) 제작

마지막으로 한번 더 약한 불로 잘 편다. 이 과정이 없으면 장마철에나 습기가 많은 날에 구부러짐이 있다.

# 6. 장고 보관방법

나무 또는 가죽으로 만들었기에 습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뜻한 곳에 보관하면 이 뒤틀리고 가죽이 바싹 건조해져 쉽게 찢어지면, 습기가 많은 곳에 두면 소리가 좋지 않을뿐더러 역시 쉽게 찢어진다. 그래서 말 못하는 장고에다 일부 주당들이 술을 자주 붙는 이유가 됐다. 장고는 바람이 통하는 시원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장고는 가죽이 늘어지므로 자꾸 당겨서 쓰는데 심각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면 장고 제작과정의 역순으로 장고를 분해하여 가죽을 물에 불려 그늘에서 건조하면 처음처럼 탱탱하게 된다.

색인